

LG 전선(주)
베트남 합작공장
ISO9002 인증

LG 전선(대표 권문구)은 최근 베트남에 준공한 전력케이블 합작 생산공장인 LG-VINA Cable(대표 한기만)이 최근 ISO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LG-VINA Cable은 현지에서 프랑스 AFAQ로부터 ISO9002 인증을 수여 받았는데 베트남내 합작 공장이 국제 규격을 인증받은 것은 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베트남 전체에서도 3개 업체밖에 없다.

이번 인증은 LG그룹이 해외에 투자한 공장으로서의 최초의 ISO9002규격 인증으로 특히 공장 가동 1년만에 국제적인 품질규격을 인정받음으로써 베트남 중앙정부와 전력 총공사 등 현지의 언론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집중적인 찬사를 받았다.

LG-VINA케이블은 LG전선이 베트남 최대의 전선 회사인 휴막(HEW-MAC)사와 공동으로 총 2300만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북부의 항구도시 하이퐁에 설립한 전선 공장으로 220V에서 33kV의 중·저압용 전력케이블과 송전용 알미늄연선(ACSR)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이번 ISO9002 인증으로 현지의 생산품을 제3국 수출과 국제 입찰은 물론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현지의 사

업 기반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대한전선(주)
다심 기계식
광접속자 상용화 성공

리 본 광섬유를 쉽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다심 기계식 광접속자가 국내최초로 대한전선(대표 兪彩濬)에 의해 지난 18일 상용화 되었다.

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93년 개발에 착수하여 올해 한국통신의 상용 시제품 시험에 합격한 이 광접속자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3M社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번에 개발된 리본 광섬유용 다심 기계식 광접속자는 8심형 리본광섬유를 일괄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광섬유 접속에 사용되어 왔던 용착접속 방식과 비교하면 高價의 접속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커넥터 접속시 광섬유 끝 단면을 연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시간내에 접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접속손실이 0.2dB 이하, 반사손실 40dB 이상으로 -40~+75℃의 최악의 환경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특히 광섬유 부분과 광섬유코팅 부분을 이중으로 클램핑하는 구조를 채택하여 광섬유 여장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광섬유의 비틀림 현상에 의한 취약한 부분의 파단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한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외국제품에 비해 품질 및 기능면에서 훨씬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의 핵심인 리본 광케이블의 사용이 본격화 되면 기간전송망 및 광가입자망의 구축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내다 보고 있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 '96년 다심 기계식 광접속자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통신의 상용시제품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이 제품을 양산·판매중에 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98 서울국제종합 전기기기전」 간담회 개최, 바이어 유치 등 성공적 개최방안 협의

한국전기공업진흥회(회장 이희중)는 지난 2월 12일 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전기, 동미전기, 보국전기, 신아전기 등 30여명의 수출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우리나라 전기제조업체 수출촉진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해외수출 활성

화를 위한 외국 바이어 초청과 우리나라 중전기기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책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중국, 독일 등의 구매단을 적극 유치해 국산 중전기기의 수출증대와 수입대체 촉진으로 무역역조 개선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동남아 전력회사의 유력인사를 초청해 직접 구매활동을 벌이는 등 각종 수출산업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기절약의 필요성과 전기안전사고 방지 필요성의 대국민 홍보활동과 전기 기술인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정보네트웍(주)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특화기술 개발로 IMF
시대 극복

한 전정보네트웍(대표 최대용)은 지난 '92년 전력사업에 필수적인 통신업무와 정보업무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공기법인 한국전력이 100% 출자하여 만든 회사로서 전력사업에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은 물론 보유한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한 신사업·신기술 개발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창업이념으로 상호를 세일정보통신(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전력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확보를 최우선의 과

제로 삼고 착실히 노력한 결과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였음은 물론 시스템 통합(SI),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SM),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보수(NI), 정보서비스사업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설립 6년만에 매출 2800여억원을 돌파했고, 전국의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24개 지역 사업소를 설립하는 등 탄탄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탄력적 팀제 운영, 인력 POOL제 도입, 능력급의 신인사제도 실현

한전정보는 지난해 산업전반에 걸친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연초에 1,150명에서 1,210명으로 늘어 불과 5% 증가에 그친 반면에, 매출면에서는 작년보다 45% 성장한 2800여억원을 달성하여 당초목표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SI업체의 급년도 평균 성장률 27%보다도 훨씬 높은 성과를 올렸다.

한전정보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력과 수행체제를 미리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전정보가 비전을 달성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체질을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경영혁신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96년 4월 최대용 사장이 취임한 이후 사명을 현재의 한전정보네트웍(주)로 변경하고 5월~10월까지 비전달성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96년 12~'97년 3월에 걸쳐 조직/인사 혁신 작업을 추진하여 오늘의 개방과 경쟁, 시장원리에 맞는 고객지향적 경영체제를 일찍이 확립해 왔다.

'97년 3월, 조직구조와 운영체계를 혁신하여 구조면에서는 조직의 기본단위를 사업시너지그룹 중심의 대팀으로 재편하는 한편, 운영체계면에서는 계약과 수금업무를 사업본부에 이관하고 실조직과 과조직의 2개 계층조직을 축소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팀제와 인재 POOL제 운영을 통하여 영업에서 계약, 서비스제공, 수금에 이르는 사업수행의 전 과정이 3단계 이내의 결재로 사업본부 안에서 신속히 완결되고 수행 프로젝트의 대소 다과에 따라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본부별 책임경영과 프로젝트중심의 고객지향적 프로세스를 확립하였다.

'97년 9월에는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기본급내 능력급의 비중을 50%로 늘리고 능력급은 매년 직무능력 평가에 따라 1~4호봉씩 차등 승급토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연공서열식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무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뿐만 아니라 급여까지도 연동되는 능력급 체계를 도입하여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보수도 많이 받고 승격도 빨리 하는 인재육성형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정립하였다.

■ '98년도 경영역점은 "전략적 경쟁우위의 확보"

IMF 체제하에서 부서간의 이기주의나 방만한 인력운영 등의 비효율적인 경영관리체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인식한 기업들이 뒤늦게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전정보는 한 발 앞서 과감한 경영혁신

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고 거품발생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특화기술 개발로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러한 저력을 토대로 한전정보는 '98년도 경영역점을 "전략적 경쟁우위의 확보"에 두고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첫째, 서비스 제공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명백히 시장원리와 공정경쟁이다.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경험, 노하우의 축적 및 운영체계의 과학화를 통하여 업무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24시간 전국 어느 곳이든지 신속한 유지보수체제를 갖추고 품질시스템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두번째는 특화사업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기업은 세계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유망한 사업분야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뿐만 아니라, 영업, 정보,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핵심역량을 확보해야 국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전정보는 올해부터 SM, 전력/기간산업 분야의 통합 솔루션, 자동화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사업의 집중화, 전문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영혁신 체제를 완전히 정착시켜나갈 것이다. 단순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전환을 동반하는 실질적인 혁신을 체질화함으로써 어떠한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기업체로 발전하겠다는 의지이다.

LG산전(주)

분전반용 소형 차단기 / 누전차단기 개발

LG 産電(代表: 李鍾秀)이 지난 1년간 2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분전반용 소형 차단기와 누전차단기(모델명 : F/FR 시리즈)를 개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차단기는 전력을 받아서 각각의 부하에 맞게 나누어주는 배전반의 핵심적인 제품으로 전력계통에 선이 끊어지거나 과부하가 걸릴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여 화재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 주는 장치로 주택, 빌딩 및 공장 등의 전원공급 설비에 필수적인 전기장치이다. 특히 누전차단기는 차단기의 기능에 누전 여부를 감지하여 차단해 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LG산전에서 개발한 차단기 F/FR 시리즈는 누전차단기의 크기를 대폭 축소시켜 차단기와 동일하게 설계함으로써 콤팩트(Compact)한 분전반을 제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기존 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능면에서도 단락 차단 용량을 대폭 향상시켜 동일 크기로는 국내 최대의 차단 용량(차단기 5kA, 누전차단기 2.5kA)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누전에 의한 단락 표시 장치를 내장하여 원인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국내 분전반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시장의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LG산전은 이번 신제품의 개발로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3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포공항에는 LG산전이 설치한 새로운 명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길이 112m, 총중량 70톤의 초대형 항공기 탑승교(Boarding Bridge)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35m 내외인 보통 탑승교보다 3배 이상 긴 세계 最長의 탑승교이다.

'C'字형의 이 탑승교는 양면이 모두 투명유리로 제작되어 공항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탑승객이 상쾌한 기분으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내외부에 각종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야간에는 공항의 불빛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긴 탑승교를 설치하는 이유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의 승객 수송량 증대가 목적이며, 청사 가장자리에 새로 만든 제36번 Gate가 항공기까지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 탑승교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국공항공단측은 이 탑승교가 "보잉 747에서 MD80에 이르는 항공기 쏠기중을 하루 24회 서빙하게 되어, 국내선 청사의 수송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의시설에서도 이 탑승교는 첨단을 달리는데, 우선 통로의 경사각도를 6도 이하로 특수 설계했고, 결두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유리와 냉난방시설 오디오시스템 등 이용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구비했다. [X]